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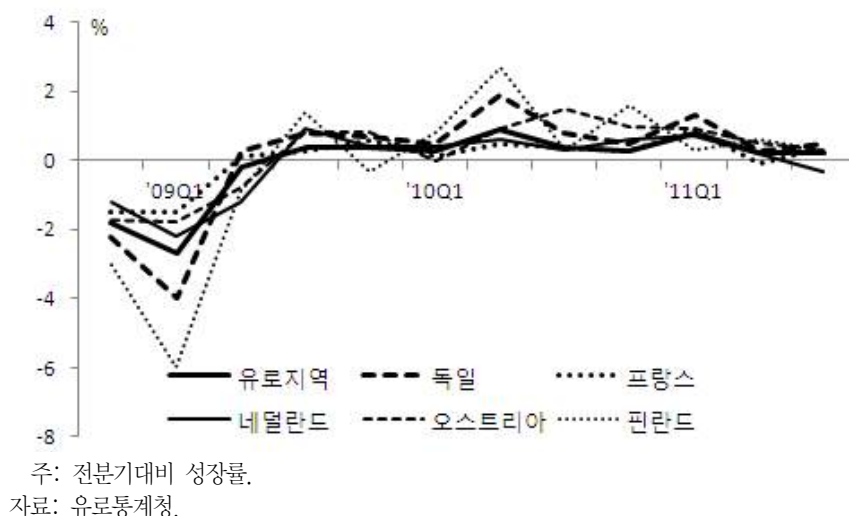
## 유로지역, 경기후퇴 우려 고조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3/4분기 유로지역 경제는 2/4분기보다 0.2% 성장하여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긴 했으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.
  - 유로통계청은 유로지역(17개국) 경제가 3/4분기 들어 전분기 대비 0.2% 성장했으며, EU(27개국)의 3/4분기 경제성장률도 0.2%를 기록했다고 밝힘.
  - 유로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3/4분기 들어 소폭이나마 개선되었으나, 그동안 꾸준히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오스트리아, 핀란드의 경우 3/4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네덜란드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됨.
    -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3/4분기에 각각 0.5%, 0.4%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0.2%p, 0.5%p 상승함.
    - 오스트리아와 핀란드의 경제성장률은 3/4분기에 각각 0.3%, 0.3%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.2%p, 0.3%p 하락하였고, 네덜란드의 경제성장률은 3/4분기에 -0.3%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.5%p 하락함.
  - 유로통계청은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3/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임.
    - 그리스 통계청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의 3/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대비 5.2% 감소했다고 발표함.
    - Wall Street Journal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은 3/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함.
- 전문가들은 유로지역 전체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받아 경제가 위축됨으로써 이미 침체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함.

- 유로지역 성장이 3/4분기에 연율 기준으로 0.6%에 그쳐 2년여 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에 빠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함.
  - JP 모건은 유로지역 경제가 2011년 3/4분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2011년 4/4분기~12년 3/4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.
- EU는 2012년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1% 미만에 그치는 가운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0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- EU는 최근 독일과 프랑스의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1.9%, 2.0%에서 0.8%, 0.6%로 하향 조정함.
  - 이에 따라 유로지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종전의 1.8%에서 0.5%로 하향 조정됨.

〈그림 1〉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추이



(Wall Street Journal 11/16, 11/11)